

5·31지방선거 D-50 선거문화 미숙하다

Ⓜ 정책없는 선거

매니페스토 정착만이 '空約' 없앤다

주요 정당의 경선과 공천이 막바지에 이르는 등 5·31 지방선거를 향한 걸음이 바빠지고 있지만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이미지 선거와 재탕·무임승차 공약만 넘쳐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인물과 정당 중심의 선거에서 정책과 유권자 중심의 선거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려는 정치권 안팎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다.

우선 공약 검증은 목표로 하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이 선거문화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책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여야 5당 대표는 지난달 중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협약을 맺었고 후보자별로 이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물론 아직은 본선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 때 이르다는 지적도 없지는 않지만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정책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여야의 정책선

후보자들 선심성·무임승차 공약 되풀이

유권자 '지역살림 공약' 살피는 안목 길러야

거 표방이 '응두사미'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나름대로 정책을 발표하는 정당과 후보자가 있긴 하다. 하지만 정당의 경우 일자리 창출·저출산 고령화·양극화 대책 등 거대 담론이 대부분이고 지방선거에 맞는 맞춤형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집권여당으로서의 정책 프리미엄을 가진 열린우리당은 '정책데이트'라는 형식 아래 개발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선심성 공약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호남고속철도 광주역·정읍역 신설 공약은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의 큰 반발을 샀다.

후보들은 재탕 공약이나 무임승차 공약으로 일관하고 있다. '첨단 경제도시' '인권 도시' '발모 뛰는 행정' '주민 참여 행정' 등 벌써 수십번은 들어 불직한 선언과 공약들이 후보들의 기자회견장에 범람하고 있다.

또 광주시장 후보와 광주 동구청장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은 '문화중심도시 건설 완성'이다. 하지만 이는 이미 국책사업을 진행되고 있는 것이어서 대표적인 무임승차 공약으로 평가된다. 또 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해온 광주전 살리기 운동에 관한 공약도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지방 정가의 분석이다.

이처럼 정책선거가 구호에 그치는 것은 이미지

에 호소하는 정치권의 선거전략과 이에 호응해 주는 유권자의 의식 수준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광주지역 한 예비후보 선거 관계자는 "생활 현장에서 나온 작은 공약들이 실제 지방선거에서 훨씬 유효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공약은 주민들이 무시한다. 이로 인해 선거의 장에 꼭짓점 댄스 같은 쇼와 이벤트, 허무맹랑한 공약(空約)만이 난무한다. 유권자들도 지역살림과 관련된 공약을 세심히 살피는 안목을 길러야 제대로된 지역일꾼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고 말했다.

주요 정당이 선호하는 여론조사 경선도 이미지 선거에 한 뉘한다는 지적이다.

선거가 두 달여 남은 상황에서 여론조사는 결국 인지도 조사와 따라서 후보들은 얼굴 알리기에 급급하고 비전과 논쟁은 사라진지 오래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천잡음 등 혼탁한 선거 분위기도 유권자의 선거 관심을 막아 유권자의 피부에 닿는 정책에 대한 논의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31 지방선거 현장

민노 지사후보 선출 17~21일로

○민노총당 전남도당은 전남도지사 후보 선출 일정을 오는 17~21일로 재조정했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도지사 후보는 농민회와 시민단체 등 주요 단체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뒤 12~16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17~21일 당원들의 인터넷·직접 투표로 선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당은 이 기간동안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까지 함께 치르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전남지역 기초단체장의 경우 지금까지 목포·순천·광양 등 3곳에 후보를 냈다.

"김재균씨 제외 여론조사 재실시를"

○반병환 광주시의회의 의장은 10일 "지난 8일 열린우리당 북구청장 경선 결과, 이형석 전 시의원이 후보로 선출됐고 김재균 전 북구청장은 입후보조차 않은 점에서 김 전 청장과의 여론조사 대결 결과를 인용한 민주당의 전략공천은 당원들에 대한 모독이자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 의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탄핵의 폭풍 속에서 쓰러져 가는 민주당을 지키고 일으켜세운 것은 중앙당·유종필·박광태·공복위·송광운도 아니고 140만 시민과 당원 동지의 피와 땀이었다"며 "전략공천을 즉각 철회하고 김재균을 제외한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구씨 "민주 전략공천 정치쇼"

○신현구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가 10일 탈당,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의 전략공천을 "치밀한 각본에 의해 연출된 정치쇼"라며 '제2의 5·18'로 규정했다.

신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정신을 육묘하고 시민들을 기만하는 정치적 한탕주의를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평생의 수치로 남을 것"이라며 "민주당과의 결별만이 당리당락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이익만 대변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송광운후보, 이형석후보 축하

○민주당 송광운 광주 북구청장 후보는 10일 열린우리당 이형석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한데 대해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송 후보는 이날 "훌륭한 후보와 지방선거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선거 운동 과정에서 상호 인신공격이나 흑색선전은 일체 하지 않고 정책선거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동구 노인복지 선진지역 만들터"

○열린우리당 임택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10일 "동구는 65세 고령인구 비율이 11%나 되는 만큼 ▲노인복지회관 권역별 건설 ▲노인고용보조금제 운용 ▲노인취업센터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 선진 시범지역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우리당 서범석씨 도지사 출마 공식 선언

지역현안 대안 제시 박지사에 회동 제의

열린우리당 전남지사 예비후보인 서범석(사진) 전 교육인적부 차관이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박준영 전남지사와 회동을 제의했다. 서 예비후보는 이날 "30여년간의 공직생활 경험을 살려 추락한 전남의 위상을 살릴 수 있는 CEO형 도백이 되겠다"고 전제한 뒤 "2012년 여수 해양엑스포 유치와 J프로젝트, S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 인구 감소 등 전남의 현안과 관련 빠른 시일내에 박 지사를 방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예로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J프로젝트와 관련 "박준영 현 지사의 작품이 아닌데다 자본 유지와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년여동안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다"고 진단하고 "특히 투자회사에 5천억원의 원금 보장을 해주는 것은 현 지사가 야당 당적을 갖고 있어 중앙정부에



사업 타당성과 효용성을 적극 설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2~13일 치러지는 여론조사 경선에 대해 "수년동안 준비해온 상대 후보의 인지도가 더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도지사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다면 굳이 저를 영입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당원들의 양식과 판단을 굳게 믿는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서 후보는 이날 ▲부패 없는 전남 선언을 통한 깨끗한 도정 구현 ▲순천시에 도청 제2청사 건립 ▲디지털 전남 실현 ▲재정력 확충 등 자치행정 분야의 공약을 추가로 제시하며 매니페스토(선거 공약 제대로 따져보기)에 부합하는 정책공약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민주당 소속으로 서구청장 후보에 도전했던 신현구 예비후보가 중앙당의 전략공천에 반발, 10일 오후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위지경기자 jrwi@kwangju.co.kr

매니페스토 전남본부 발족

5·31 매니페스토 전남추진본부가 11일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와 광양환경운동연합, 고흥군민연대 등 10여개 시민단체와 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로 구성된 전남추진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순천시 매곡동 행·의정감시를 위한 전남연대 사무실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

적인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이날 회견에서는 '혈연·지역·학연·금연 등 4연의 고리를 끊자'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6 전남 유권자 선언'이 함께 발표된다.

이상석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번 회견은 전남에서 첫 공약과 연구주의를 배격하고 정책선거 도입을 위한 매니페스토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라며 "후보자들과 협약식은 오는 20일께 전남도선관위와 함께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민주 서울시장후보 경선 검토

박준선 전 의원의 전략공천이 유력시됐던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출 방식이 경선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1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강금실 전 법무장관과 오세훈 전 의원이 각각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후보 선출과 관련

경선을 과감히 수용함에 따라 민주당도 경선을 통해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만 전략공천을 통해 후보를 선출할 경우 본선에서 타당 후보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데다 박준선, 김경태, 김영환 전 의원 등이 경선을 치른다면 당내 분란도 막을 수 있고 나름대로 유권자들의 관심도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본내선 0621-372-8881-2

www.kjdsa.com

★광주도도당 ★삼계탕 ★임탕(죽얼숙)

하나로통신 인터넷·전화·유선·IPTV

가정·사무실·주방·학교·병원·호텔·호텔·호텔

인터넷·전화·유선·IPTV

062-449-9000

PC방 상입 업그레이드 이제는 임대로

062-2285-1544

파워콤 PC방·인터넷·전화·유선·IPTV

062-2285-1544